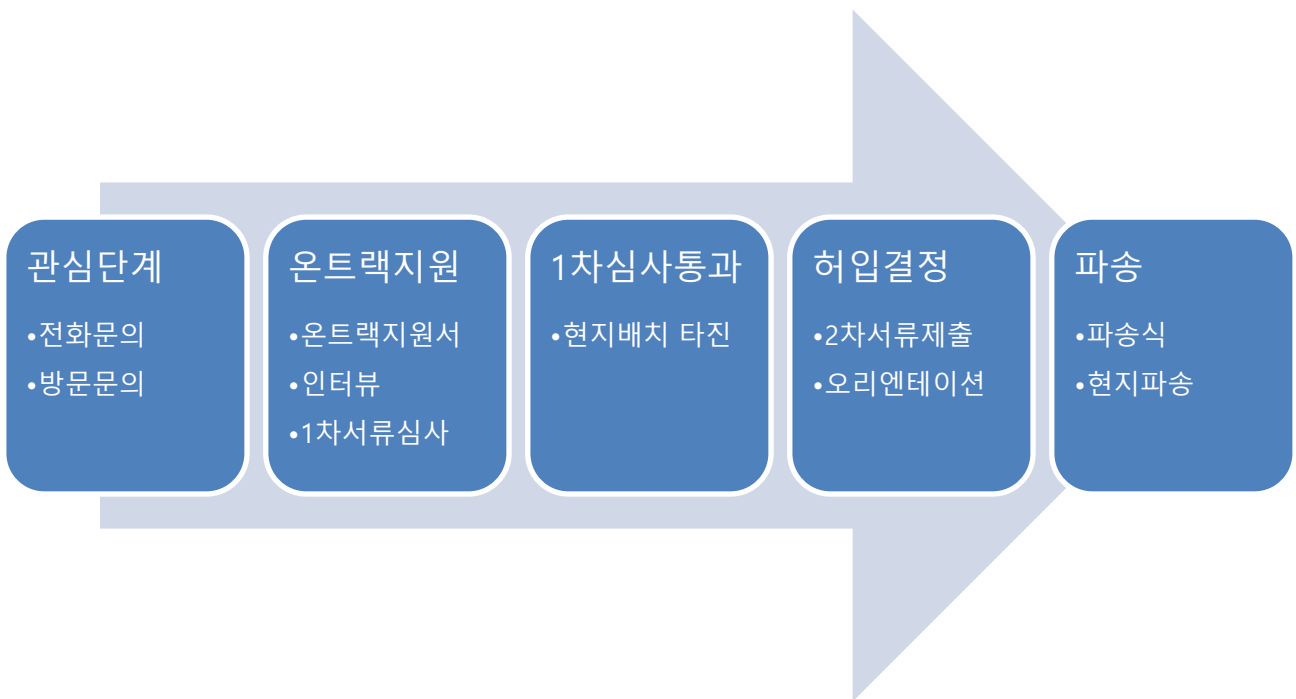


온트랙 지원 및 파송절차

온트랙 관심자는 1년 또는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필요한 사역을 통해 제자도와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온트랙 지원에서 파송까지의 절차는 다음의 과정을 따라 진행한다.



1. 관심단계

온트랙 지원에 앞서 온트랙 담당자와 선교지와 사역 내용, 선교지 파송 등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한 문의 후, 온트랙 지원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인터서브코리아에 온트랙지원서를 제출한다.

인터서브코리아 인사 담당자: 셀레나 매니저, 031-778-7931, opmanager.isk@gmail.com

2. 온트랙지원

인터서브코리아에서 요구하는 1차 서류를 제출한다. 인터서브코리아 인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자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인터서브 인사 담당자 및 인터서브코리아 시니어스텝들과 진행한다. 지원자가 제출한 추천인을 통한 평판체크도 이 단계에서 진행한다.

(1) 1 차 서류 작업

CV (영문이력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작성 필요
P.F (영문 지원서)	→ 담당자가 보낸 링크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작성
자기소개서 (국문)	→ 자신의 가족배경, 성격장단점, 훈련, 경력 등을 기술
신앙간증문 (국문)	→ 신앙간증은 구원간증을 중심으로 작성
선교헌신문 (국문)	→ 선교헌신의 계기, 선교를 위한 준비, 선교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추천인 명단	3 인의 추천인 [본인을 잘 아는 목회자, 은사, 동료]의 이메일, 휴대폰번호 필요

3. 1 차심사통과

1 차심사에서 통과되면 현지배치 타진이 진행된다. 인터서브코리아는 국제 온트랙 담당자 및 현지 담당자와 현지배치 확정을 위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된다.

4. 허입결정

국제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파송지와 사역이 결정되면 허입이 결정된다. 허입이 결정된 온트랙커는 국내/현지 온트랙 담당자와 파송 준비일정을 조율한다. 허입이 결정된 이후 파송 전까지 제출할 2 차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강검진결과지(국문, 영문),
- 여권사본 1 부
- 여행자보험 사본 1 부
- 취득한 자격증사본 1 부
- 자필유언장
- In the Event of Death(EOD, 인터서브코리아에서 양식 제공)

온트랙커들은 선교훈련과 멘토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인터서브코리아에서 이틀에 걸쳐 받는다. 또한 온트랙 파송을 준비하는 동안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진행되는 정기모임인 월례정기기도회(매월 셋째주 월요일 저녁)에 참여하여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선교 경험들을 체득한다. 파송 전 기간에 기도후원과 재정후원자를 발굴하고, 여권 및 비자를 준비하고 항공권 구매를 완료한다.

6. 파송

파송지와 최종 파송 날짜가 정해지면 인터서브코리아에서 온트랙커의 파송식을 진행한다. 파송식 이후에 국제 인터서브 온트랙소속으로 선교지에 파송한다. 파송 이후, 국내에 귀국할 때까지 선교지에서 온트랙커들의 지속적인 돌봄과 관리(도착 직후 오리엔테이션과 출발 전 사역평가 포함)가 이루어지며, 온트랙커는 인터서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사역해야 한다.